

LPG산업의 구조개편방안

— LP가스공업협회 —

— 목 차 —

- I. LPG산업 현황
- II. 안전공급계약제의 공과
- III. 日本 LPG산업의 특징
- IV. 구조개편방안

60년대초부터 사용되어온 LPG가 그간 편리성과 청정성을 바탕으로 80, 90년대 국민연료의 가스화시대를 열어온 것이 잊그제 일인데, 이제는 도시가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사양산업 운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아직은 약 800만가구가 그것도 서민대중이 사용하는 연료라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가 상존하다고 볼 때 LPG산업의 새로운 조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선진외국의 사례등을 참고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체질개선과 효율화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만 생존,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LPG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한후 일본 LPG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산업의 개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I. LPG산업 현황

○가정·상업용 LPG수요정체 : 도시가스 확산

〈가정·상업용 가스수요 추이〉

(단위:천톤)

구분	'98	'99	'2000
LPG	2,122 (-10.8%)	2,345 (10.5%)	2,359 (0.6%)
도시가스	4,839 (23.7%)	6,024 (24.5%)	6,847 (13.7%)

*자료 : 「고압가스통계 '2001」, 가스안전공사

○ LPG가격경쟁력 저하

'00.7	'00.8	'00.9	'00.11	'00.12	'01.1	'01.2	'01.3	'01.4	'01.5
772.00	812.00	837.00	881.00	940.00	966.10	995.90	984.73	963.85	906.59

〈도시가스대비 가격비 (2001. 5월기준)〉

LPG	도시가스
100	67.6

○정책지원 미흡

- 거시적으로 도시가스의 보완재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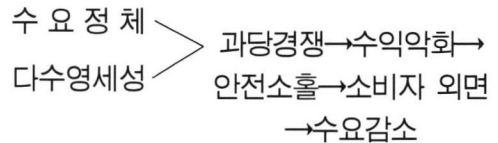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어려운 지역이나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
따라서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열위

- 정부부문 비용 비교 (2001. 4기준)

구분	프로판(원/kg)	LNG(원/m ³)
○관세등 부담금	11.27	12.07
- 관세	6.77	2.59
- 부과금	4.5	9.48
○특소세	40	32.31
○부가가치세	87.62	45.63
세금 등 부담금 총액	138.89원	90.01원
유효열량당 가격지수	100	74.1

○유통주체간 분열

- 정유·수입업체, 충전업체, 판매업체가 상호경쟁관계
- 충전 및 판매업소의 다수영세성과 과당경쟁
- 즉 업체 “파이”를 키우는 노력보다 “소경 제담 잡아먹기”에만 급급
- 결과적으로 축소지향적 악순환 초래



II. 안전공급계약제의 공과

(가) 긍정적 측면

- LPG산업정책이 산자부정책의 전면에서 부상
- 판매업체에 활력소 제공
- 무과실책임보험 도입

(나) 부정적 측면

- 안전이 아닌 유통부문에 정부가 너무 깊이 간여한다는 비판
- 충전업체를 배제시켜 갈등 증폭
- 용기관리주체에 대한 혼선
- 공급계약 건수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소홀 (공교롭게도 시범지역에서 사고빈발)

III. 일본 LPG산업의 특징

- 양적성장의 한계를 질적성장으로 대체
산업발전단계상 성장기·성숙기를 지나 안

정기로 접어들고 있음
 아니, 안정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합당할 것임

왜냐하면 가정용 수요의 한계·도시가스의 확대 등으로 LPG시장이 쇠퇴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기개발·용도확대·자동화·안전기기개발보급 등의 업계노력으로 안정적 성장의 상황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 때문임

- 이같은 사실은 93.9 시찰시에도 파악된 바 있으나, 최근의 변화는 수평적·수직적통합에 의한 유통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다수 영세성을 겸업형태로 보완
 우리와 비교할 때 수입사 약30개, 용기충전소 2,800개, 판매소 3만개라면 다수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수입·충전·판매가 대형물류기지 등으로 일체화되면서 효율을 찾고 있다는 점

○ 가격경쟁이 아닌 안전경쟁
 업소간의 제살깎기식 가격경쟁은 전혀 없고 집중감시시스템 등을 통한 안전과 서비스의 경쟁이 있을 뿐임
 특히 공급자가 공급설비의 투자를 하고 체적거래를 함으로써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고정거래가 유지되면서 신규업소 문제나 기존 업소간 과당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 많은 유통마진으로 안전투자 가능

구분	CP(A)	소비자가격(B)	B/A
日本	35¥/kg	250¥/kg	7배
韓國	400원/kg	960원/kg	2.4배

- CP가격대비 소비자가격이 우리의 경우 2.4

배인 반면 일본은 약 7배인바,

그만큼 중간유통마진이 많음

- 따라서 업계의 자본축적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설비부담·집중감시시스템 등 안전부문 투자가 가능함

- 특히 우리보다 판매량면에서 영세하지만 높은 마진으로 기업유지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음

IV. 구조개편방안

원칙적으로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유통주체간 약육강식으로 수평적·수직적통합을 이룰수 있겠으나 이 경우 혼란과 막대한 피해(사회적비용)를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존의 틀속에서 점진적으로 수평적·수직적통합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임

(가) 공존방안 (단기)

○ 안전공급계약제의 확대·발전

- 적용대상에 충전사업자도 포함

즉,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LPG를 판매할때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함

- 용기관리는 공급자의무로 규정

- 판매소가 독자적으로 용기관리를 할수없을 때에는 충전소와 용기관리를 매개로 하는 LPG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함

- 충전소와 판매소는 원칙적으로 1:1 공급계약 (특히 공동화 판매소에 1개 충전소가 공급토록)

○ 업계간 협의기구 설치

- 명 칭 : PROPANE산업발전협의회 (가칭)
- 주 체 : 한국LP가스공업협회와 한국가스
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주
체
- 기 구
 - 의 장 : 양 단체장이 공동의장
 - 위 원 : 양 단체장이 각 5인이
내 선임
 - 사무국 : 협회내에 두며 협회
부회장이 국장을 맡
고 양 단체 각 1인씩
간사 지명
- 기 능
 - 양 업계의 공통된 정책방향 조율
 - 양 업계간 이해관계의 조정

○ 통합판매소에 대한 1:1 거래

- 통합판매소에 대해 5~8개 충전소가 공급하
고 있는 것을 1~2개 충전소로 정리
(2개로 할 경우 동일 정유·수입사 계열로)
- 정리방안은 LPG공업협회가 통합판매소
에 공급하는 충전소의 판매량·수송거리
등을 감안하여 상호 거래처교환 방식으로
조정

(나) 장기적방안

- 공존의 틀안에서 효율 추구
- 대내적 : 수평적·수직적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 대외적
 - 제도개선
 - 신규수요개발 (GHP 등)
- 결과적으로 공존의 틀이 용광로 역할을 하
여 수입·충전·판매라는 각각의 업역이
융해되어 종합적 LPG공급기업으로 발전
될 것임

(다) 정책건의사항

- LPG가 도시가스의 대체재가 아닌 고유영
역의 에너지원임을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
- 안전공급계약제의 보완
즉, 충전사업자도 동제도내에서 권리와 의
무를 다하도록
- LPG의 정부관련비용(특소세, 관세, 기금
등)을 폐지 내지 축소하여 가격경쟁력을 회
복토록